

고위당정협의회 논의 내용

- 브리핑 :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 -

< 1. 인사말씀 >

□ 안녕하십니까.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.

< 2.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내용 >

- 어제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, 수산물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
- 먼저,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,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-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, 확대된 지점의 세슘과 삼중수소의 분석 주기는 현행 1~3개월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.
- 또한,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위판장에서 유통 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

- 다음으로, 당정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의혹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- 지금 이 자리(일일 브리핑)를 통해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로 했고,
- 인터넷 포털과 협업해 국민들께서 검색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- 또한, 당정은 불안심리로 인한 단기적 소비 충격에 대비해, 적체물량 적기 해소, 소비 활성화, 수산업계 경영난 극복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.
- 어제 당정이 논의한 내용은 구체화 되는대로,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께 신속히 전달드리겠습니다.

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-

< 1. 인사말씀 >

□ 해양수산부 차관 송상근입니다.

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□ 6월 19일 기준,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지난 6월 15일 추가된 생산단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1건이었습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○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붕장어 4건, 뱀장어 4건, 고등어 3건, 방어 3건, 가리비 2건 등이었습니다.

□ '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' 운영 결과입니다.

○ 시료 확보가 되는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11건 중 4건의 검사가 완료되었고, 전부 적합이었습니다.

○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, 알려드리겠습니다.

-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.
 -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6개현에서 주입된 선박 평형수에 대하여 항만에서 이동형 측정 장비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- 지난 브리핑 이후,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

< 3. 개별 설명 사항 >

-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① 후쿠시마 오염수의 국내 유입 시기 관련 언론 보도

- 먼저, 최근 국내 전문가 인터뷰에서 언급된 ‘오염수의 국내 유입시기’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-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
 - 시뮬레이션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해역에 언제 얼마 만큼의 농도로 삼중수소가 유입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.

-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~5년 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되어 10년 후 우리 바다의 평상시 삼중수소 농도의 약 10만분의 1 수준인 0.001 세제곱미터당 베크렐(Bq/m³) 내외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- 이와 관련, 최근 보도된 전문가 인터뷰 중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확인해드립니다.

- 일부에서 “해당 시뮬레이션은 0~200m 표층의 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, 수심 200~500m 물은 대만해협을 통해 제주 근해를 거쳐 동해로 유입되는 데 5~7개월 걸린다”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,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.

- 국내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모델은 표층에서 수심 5천미터까지 계산이 가능한 모델이며, 시뮬레이션 결과도 수심 200~500m의 중층수 거동을 포함하여 심층까지 계산한 결과입니다.

- 중층수 유입에 관한,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저의 브리핑이 끝난 후, 서울대학교 조양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

② 해양 방사능 · 수산물 안전 Q&A 코너 운영

- 다음 “해양방사능·수산물 안전 Q&A” 코너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.
 - 일일 브리핑을 통해 안전 정보와 개별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지만,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 -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우리 해역과 수산물 안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, 내일 (6.20)부터 일주일 간 시범운영을 거쳐 “해양 방사능·수산물 안전 Q&A” 코너가 운영됩니다.
 - 관련 코너는 해수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, 무엇이든 궁금하신 사항을 올려 주시면, 관련 담당자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
③ 천일염 관련

- 지난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천일염 품귀 및 소금가격 인상은 4~5월 기상여건으로 생산량이 줄어 생긴 문제가 근본 원인입니다.
 - 6~7월 생산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며, 천일염은 이번 달부터 점차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어서 공급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
- 6월 생산량(6.1~6.16)은, 신안군 현지 확인한 결과, 지난주 금요일까지 생산량은 2만톤 이상이며, 현재 추세대로라면 6월 전체 생산량은 평년수준인 4만톤은 무난하고, 5만톤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
- 그리고, 올해 생산된 햇소금 10만톤도 7월에 출하할 계획이라고 신안군이 오늘(6.19)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.
- 「신안천일염생산자연협회」도 지난주에 지금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천일염을 구입하는 것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.
- 그리고,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천일염 판매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
- “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”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- 우리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합니다.
- 정부는 필요시 정부가 일정물량을 수매 후 할인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만큼,
- 천일염 공급,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이상입니다.